



심리치료자들 중에서 변화가 불가능한 심리적 요인에 주목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 하지만 치료자는 심리치료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내담자의 독특한 개인적 요인까지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임상적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McWilliams, 1999).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인은 수용하는 것이 내담자의 적응에 유익하기 때문이다(Eifert & Forsyth, 2005; Hayes, 2005; Hayes, Strosahl, & Wilson, 1999; Shapiro & Astin, 1998).

본 연구에서는 심리치료를 통해 변화시키기 어려운 심리적 특성인 기질(temperament)에 주목하였다. 기질은 개인의 기본성향 혹은 생물학적 기본구조이며(Wicks-Nelson & Israel, 2000), 일반적으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등에서의 개인차로 개념화된다(Prior, 1992). Thomas, Chess와 Birch(1968)에 의해 촉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온 현대의 기질 연구는 인간이 빈 점토판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Kagan(1989, 1997)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생애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기질은 성격장애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심리적 요인임이 분명하다(유성진, 권석만, 2008).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성격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한 Beck, Freeman과 Davis(2004)는 선천적 기질이 과장된 형태로 표현된 것이 성격장애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특정한 기질유형을 지닌 사람은 특정한 성격장애에 취약하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생애 초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발현되는 반응양상은 결국 성격구조의 일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질적 기본성향이 강력하고 극단적일수록,

그것이 조절되지 않은 채 과장된 형태로 발현될 취약성은 더욱 증가된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b). 극단적인 기질은 평범한 환경을 압도할 수 있으며, 과거력 상에서 뚜렷한 외상경험 없이도 심리장애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하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더 나아가서, 기질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Eder & Mangelsdorf, 1997). 첫째, 기질의 개인차는 세상과 환경에 대한 개념형성에 기여한다. 기질적 성향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표상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표상한다. 둘째, 기질의 개인차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형성에 기여한다.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 여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기질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천적으로 각인되어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정서적 반응의 수준을 넘어선다. 기질은 선천적 경향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타인표상과 자기표상에 기여함으로써 결국에는 의식적이고 개념적인 반응까지도 일정 정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기질이 성격구조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Beck et al., 2004; Young et al., 2003).

기질의 신경생물학적 기반 및 기질과 성격장애의 관련성에 관해 연구해 온 Cloninger (1987, 2004)는 다음의 네 가지 기질차원을 확인하였다: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새로운 자극에 의해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 위험회피(harm avoidance: 위험한 자극에 의해 행동이 억제되는 경향),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사회적 보상신호에 대한 민감성), 인내력(persistence: 지속적 강화 없이도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 Cloninger(1987)의 기질 모형은 성격장애의 전통적 하위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자극 추구 기질은 군집 B 성격장애와 상관이 높고, 위험회피 기질은 군집 C 성격장애와 상관이 높으며,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군집 A 성격장애와 높은 역상관을 보인다(Svrakic, Whitehead, Przybeck, & Cloninger, 1993). 아울러, 기질차원들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특정한 기질유형은 특정한 성격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자극추구 기질이 극단적으로 강하면서 위험회피 기질과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극단적으로 약한 사람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취약했으며, 위험회피 기질이 극단적으로 강하면서 자극추구와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극단적으로 약한 사람은 강박성 성격장애에 취약하였다. 그러나 기질 모형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비록 기질유형에 대응되는 성격장애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기질유형만으로는 성격장애 유무 및 심리장애의 심각도를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 (1994)은 동일한 기질유형을 지닌 사람이라도 성격발달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성격장애의 유무와 심각도에 대한 판별을 가능케 하는 성격차원을 추가한 기질-성격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성격(character)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을 반영하며,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발달한다(민병배 등, 2007b; Cloninger et al., 1994). 성격은 개인적인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질에 의해 유발되

는 반응을 변화시킨다. 자극이 입력되면 일단은 기질에 의한 최초의 자동적 반응이 유발되지만, 성격의 성숙을 통해서 자극에 부여된 의미가 변함에 따라 기질에 의해 유발된 반응은 최종적으로 조절된다. 기질-성격 모형에서 제안된 성격차원은 다음의 세 가지다: 자율성(self-directedness: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자율적 인간으로 동일시하는 정도), 연대감(cooperativeness: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사회의 통합적 일부로 동일시하는 정도),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 일부로 동일시하는 정도).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율성과 연대감 성격차원에서 전형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Svrakic et al., 1993). 이를 바탕으로 Cloninger(2004)는 심리치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요원한 기질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작업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변화가 용이한 성격을 성숙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전통적인 DSM 성격장애의 대부분은 극단적인 기질유형과 잠재적으로 연관되지만 일부 성격장애와 정서장애는 미성숙한 성격유형과 잠재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이 밝혀졌다(Cloninger & Svrakic, 2000). 이것은 극단적 기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성격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적 미성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성격장애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격장애에 미치는 기질과 성격의 복합적인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 이론상으로 기질은 어느 것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적응에 더 유리한 기질유형과 더 불리한 기질유형이 존재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은 약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은 강할수록 적응에 유리하였고, 반대의 경우에는 적응에 불리하였다(Svrakic, Draganic, Hill, Bayon, Przybeck, & Cloninger,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의 기질 모형(Cloninger, 1987)은 성격장애 유형과 심리적 부적응 여부에 대한 평가라는 진단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후기의 기질-성격 모형(Cloninger et al., 1994)은 성격의 발달과 성숙을 통한 기질의 조절과 수용이라는 치료적 목적까지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질-성격 모형의 치료적 활용성보다는 진단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축 II 장애가 아닌 축 I 장애와 각 기질차원의 관련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성격장애 및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들과 긍정심리학 분야의 괄목할 성과들을 기질-성격 모형에 다층적으로 접목시킬 때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탐색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부적응의 지표와 아울러 심리적 적응의 지표를 포함시켜 기질-성격 모형을 긍정심리학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으며, 이상 성격뿐만 아니라 정상 성격에 대한 이해, 분류 및 성격의 성숙과 발달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들에 견주어 Cloninger 등(1994)이 사변적으로 도출한 성격차원의 의미와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셋째, 적응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질차원의 방향성을 검토하면서, 기질의 취약성과 아울러 기질의 탄력성을 탐

색하였다. 특히, 인간의 성격적 강점에 관한 긍정심리학적 견해와 접목시켜 보다 실제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기질 및 성격 차원이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전통적인 성격장애를 변별해주는 전형적인 핵심 믿음을 평가하여 성격장애와 기질-성격차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질-성격 모형이 제공하는 치료적 시사점을 보다 명료히 하여 후속연구 및 임상실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의 지표로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긍정 정서성, 부정 정서성, 그리고 전통적인 성격장애 성향을 선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성개념이다(Diener, 1994). 주관적 행복감은 권석만(2009)이 제작한 척도를 통해 측정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충분히 정립된 논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포함시켰다. 긍정 정서성과 부정 정서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긍정 혹은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Watson, 2000).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단일한 연속선의 양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차원인 것으로 이해된다(Tellegen, Ben-Porath, McNulty, Arbisi, Graham, & Kaemmer, 2003). 성격장애 성향은 Beck과 Beck(1991)이 개발한 성격 신념 질문지를 통해서 측정되며, 전통적인 성격장애의 핵심 믿음을 평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탄력성에도 주목하여 Peterson과 Seligman

(2004)이 제시한 성격적 강점(character strengths)에 대한 견해를 차용하였는데, 긍정심리학자들은 성격적 강점이 심리장애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Keyes & Lopez, 2002). 성격적 강점의 분류체계는 6개의 상위덕목과 24개의 하위덕목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권석만(2008)을 참고할 수 있다. 성격적 강점과 기질-성격 모형을 접목하는 연구는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을 성격적 및 기질적 강점의 존재 혹은 부재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치료적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들은 각 기질차원 및 성격차원과 특수하게 관련되는 성격적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개념적으로 예측컨대, 기질차원의 자극추구는 상위덕목의 용기 및 하위덕목의 호기심, 활력, 창의성, 용감성 등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상위덕목의 절제 및 하위덕목의 자기조절, 신중성, 용서 등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위험회피는 상위덕목의 절제 및 하위덕목의 신중성 등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상위덕목의 용기 및 하위덕목의 낙관성, 용감성, 개방성, 활력 등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사회적 민감성은 상위덕목의 자애 및 하위덕목의 사랑, 친절, 사회지능, 감사, 용서 등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겸손 등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인내력은 하위덕목의 끈기, 활력, 자기조절 등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성격차원은 성격적 강점의 상당수와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자율성은 특히 상위덕목의 용기 및 하위덕목의 자기조절, 리더십, 학구열 등과 상관성이 높을 것이다. 연대감은 특히 상위덕목

의 자애 및 하위덕목의 사랑, 친절성, 용서, 겸손, 공정성, 시민정신 등과 상관성이 높을 것이며, 자기초월은 특히 상위덕목의 초월 및 하위덕목의 영성, 심미안, 창의성, 지혜, 유머, 개방성 등과 높은 상관성을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S대학교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10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남학생이 49명(47.5%)이었고 여학생이 54명(52.5%)이었다.

### 측정도구

####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S: TCI-RS)

이 검사는 Cloninger 등(1994)이 제안한 기질-성격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기질을 측정하는 4개의 척도와 성격을 측정하는 3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a)이 표준화하여 대학생 이상 성인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을 사용하였다.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직접 평정한다. 한국판 표준화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집단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척도별로 .83~.90의 범위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척도별로 .76~.90으로 양호하였다(민병배 등, 2007b).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이 척도는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정서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라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문항들은 감정이나 기분을 묘사하는 20개의 형용사(예: 열정적인, 부끄러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가 5점 척도상에서 현재를 포함한 지난 1주일간의 정서 상태를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내적 합치도 계수는 .84(정적 정서), .87(부적 정서) 그리고 .84(전체)로 보고된 바 있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Subjective Well-Being Scale: SWB)**

이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한덕웅과 표승연(2002)이 사용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상반되는 정서를 묘사하는 2개 형용사의 쌍(예: 비참함-즐거움)으로 구성되는데,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연속선의 양끝에 정서적 의미가 대립되는 형용사를 1개씩 제시하는 방식이다. 조수아(200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었다.

**행복 척도(Happiness Scale)**

이 척도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석만(2009)이 제작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대체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한다), 5점 척도상에서 피검자가 직접 평정한다. 표준화 예비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이었다.

**성격적 강점검사(Character Strength Scale)**

이 검사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개발한 VIA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개인의 성격적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 권석만(2009)이 제작한 검사이다. 여기에는 6개의 상위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이 포함되는데, 이 검사는 24개의 하위강점을 10개씩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선희도를 평가하는 10문항이 추가되었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상에서 직접 평정한다. 표준화 예비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집단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강점별로 .76~.92의 범위였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강점별로 .65~.84였다.

**성격 신념 질문지(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PBQ)**

이것은 DSM-III-R(APA, 1987)의 축 II에 포함된 성격장애들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전형적인 역기능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Beck과 Beck(1991)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원래 9개의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각 척도마다 14문항씩 총 1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조수덕, 황순택, 박미정(2008)이 전통적인 성격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동공격성 성격장애 척도를 제외하고 112문항을 번안하였는데, 전체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였으며, 성격장애 척도별로는 .71~.91의 범위에 속했다.

**결 과**

기질-성격 모형을 구성하는 차원들 사이의 관계

표 1에는 기질-성격 모형을 구성하는 차원들과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우선, 표 1의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질의 네 차원들은 서로 복잡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극추구 기질은 위험회피( $r=-.06, ns$ ) 및 사회적 민감성( $r=-.01, ns$ )과 상호독립적이었으며, 인내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6, p<.01$ . 위험회피 기질은 자극추구와 상호독립적이었지만, 사회적 민감성( $r=-.40, p<.01$ ) 및 인내력( $r=-.62,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자극추구와 상호독립적이었고, 위험회피와 부적 상관되었으며, 인내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1, p<.001$ . 인내력 기질은 자극추구 및 사회적 민감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위험회피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비해, 표 1의 (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질차원과 성격차원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명료한 상관패턴이 관찰되었다. 자극추구 기질은 성격의 세 차원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위험회피 기질은 자율성 및 연대감 성격차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75, p<.001$ ;  $r=-.25, p<.05$ . 반면,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성격의 모든 차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36\sim.57$ ;  $r=.26\sim.54$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병배 등(2007b)이 보고한 우리나라 대학생 규준집단의 상관패턴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기질-성격차원과 심리적 적응 사이의 관계

다음으로, 표 1의 (3)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적 적응의 지표인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긍정 정서성은 기질-성격차원과 거의 동일한 방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기질 차원 중에서 자극추구는 이들 중 어떤 측정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순서대로  $r=-.05, -.12, .07$ ), 위험회피는 모든 측정치와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순서대로  $r=-.46, -.50, -.38$ ), 사회적 민감성은 모든 측정치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순서대로  $r=.48, .49, .49$ ), 인내력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순서대로  $r=.40, .45, .49$ ). 성격차원은 세 가지 모두 심리적 적응의 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자율성과 심리적 적응 지표 사이의 상관계수( $r=.39\sim.71$ )가 연대감( $r=.24\sim.33$ ) 및 자기초월( $r=.26\sim.38$ )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반해, 심리적 부적응의 지표인 부정 정서성과 기질-성격차원 사이의 상관관계는 긍정 정서성의 경우와 거의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즉, 부정 정서성은 기질차원 중 위험회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46, p<.001$ )을 보였으며,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과 유의미하지는 않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22, -.23, ns$ . 또한 부정 정서성은 성격차원 중 자율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 $r=-.65, p<.001$ )을 보였고, 연대감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r=-.21, ns$ .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경험과 정서를 반영하는 심리적 적응의 지표들은 위험회피 기질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과 정적 상관을

표 1. 기질-성격차원과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기질차원				성격차원			평균	표준 편차
		NS	HA	RD	P	SD	C	ST		
(1) 기질	자극추구	-							31.81	11.97
	위험회피	-.06	-						32.11	13.28
	사회적 민감성	-.01	-.40**	-					45.58	12.31
	인내력	.36**	-.62***	.41***	-				42.35	12.19
(2) 성격	자율성	-.08	-.75***	.36**	.54***	-			52.57	13.57
	연대감	-.22	-.25*	.57***	.26*	.18	-		54.50	9.97
	자기초월	.09	-.06	.36**	.35**	.14	.36**	-	20.47	12.25
(3) 적응	주관적 안녕감	-.05	-.46***	.48***	.40**	.59***	.24*	.26*	36.58	6.39
	주관적 행복감	-.12	-.50***	.49***	.45***	.71***	.28*	.38**	46.23	14.10
	긍정 정서성	.07	-.38**	.49***	.54***	.39**	.35**	.37**	17.27	7.36
	부정 정서성	.09	.46***	-.22	-.23	-.65***	-.21	.03	10.37	7.22
(4) 강점	지혜	.44***	-.31**	.30*	.71***	.23	.37**	.48***	87.06	19.19
	자애	.08	-.50***	.73***	.56***	.38**	.62***	.41***	59.84	19.19
	용기	.03	-.53***	.50***	.78***	.53***	.45***	.44***	64.04	18.74
	절제	-.37**	.05	.28*	.17	-.03	.68***	.40**	64.40	16.88
	정의	-.15	-.31**	.52***	.47***	.24*	.74***	.40**	47.45	12.19
	초월	.30*	-.48***	.62***	.57***	.50***	.59***	.66***	90.11	23.46
(5) 성격 장애	군집 A	.55***	.31**	-.52***	.01	-.39**	-.32**	-.05	21.64	13.86
	군집 B	.67***	.21	-.07	.20	-.27*	-.19	.17	31.78	21.15
	군집 C	.40**	.51***	-.12	-.02	-.53***	-.10	.23	31.68	16.81
	전체	.59***	.38**	-.22	.08	-.44***	-.20	.15	104.40	52.45

주. NS=자극추구, HA=위험회피, RD=사회적 민감성, P=인내력, SD=자율성, C=연대감, ST=자기초월.

\* $p < .05$ , \*\* $p < .01$ , \*\*\* $p < .001$

보였으며, 성격차원 모두와 정적 상관을 드러내었다. 반면,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 심리적 부적응을 반영하는 지표는 위와 정반대의 양상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강할수록 적응에 불리하며,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강할수록 적응에 유리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었다(Svrakic et al., 1993; Svraic et al., 2002). 다만, 자극추구 기질과 심리적 적응 혹은 부적응의 지표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이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점이었다.

#### 기질-성격차원과 성격적 강점 사이의 관계

다음으로, 표 1의 (4)에는 기질-성격차원과 성격적 강점검사 6개 상위척목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질차원과 강점의 상위척목은 다소 복잡한 상관패턴을 드러냈으나, 성격차원과 강점의 상위척목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명료하였다. 기질차원 중 자극추구는 지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44, p<.001$ )을 보였으며, 절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37, p<.01$ )을 보였다. 위험회피 기질은 절제( $r=.05, ns$ )를 제외한 5개 상위척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 $r=-.53\sim-.31, p<.01$  혹은  $p<.001$ )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6개 상위척목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28\sim.73, p<.05$  혹은  $p<.001$ )을 보였고, 인내력 기질은 절제( $r=.17, ns$ )를 제외한 5개 상위척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47\sim.78, p<.001$ )을 보였다. 성격차원은 세 가지 모두 강점검사의 6개 상위척목과 전반적인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연대감과 자기초월은 6개 상위척목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37\sim.74; r=.40\sim.66$ ). 자율성의 경우만 지혜와 절제에서 일부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계수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성격차원과 성격적 강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예측한 상관관계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기질차원 중 자극추구는 예언대로 절제 상위척목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위험회피는 예언대로 용기 상위척목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민감성은 예언대로 자애 상위척목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격차원들은 예언대로 거의 모든 상위척목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자율성은 예언대로 용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연대감은 예언대로 자애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초월은 예언대로 초월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성격적 강점검사로 측정된 24개 강점과 기질-성격차원 사이의 상관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기질차원을 살펴보면, 자극추구 기질은 지혜의 하위강점인 창의성( $r=.65, p<.001$ ) 및 호기심( $r=.46, p<.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절제의 하위강점인 겸손( $r=-.32, p<.01$ ), 신중성( $r=-.32, p<.01$ ), 자기조절( $r=-.44, p<.001$ ), 그리고 정의의 하위강점인 시민정신( $r=-.24, p<.05$ ) 및 공정성( $r=-.24, p<.05$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위험회피 기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13개 강점 모두와 부적인 상관( $r=-.69\sim-.27$ )을 보였는데, 특히 낙관성, 용감성, 활력, 리더십, 사회지능, 사랑과는  $-.50$  이상의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위험회피와  $.20$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인 강점으로는 겸손( $r=.21, ns$ )이 유일하였으나, 이것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험회피와 정반대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24개 강점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 중에서 17개 강점과의 상관계수( $r=.26\sim.68$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사회적 민감성과  $.50$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강점들은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감사, 활력, 낙관성, 리더십, 유머감각, 감상력 등이었다. 인내력 기질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19개 강점 모두와 정적 상관( $r=.26$

표 2. 기질-성격차원 및 성격장애 측정치와 성격적 강점 사이의 상관계수

6개 상위덕목	24개 하위덕목	기질차원				성격차원			성격장애		
		NS	HA	RD	P	SD	C	ST	군집A	군집B	군집C
지혜	창의성	.65***	-.27*	.15	.48***	.15	.07	.24*	.24*	.34**	.10
	호기심	.46***	-.42***	.44***	.66***	.31**	.33**	.50***	.02	.32**	.10
	개방성	.04	-.06	.17	.47***	.02	.31**	.29*	.21	.24*	.37**
	학구열	.19	-.05	.04	.39**	.00	.21	.34**	.15	.10	.15
자애	지혜	.16	-.31**	.29*	.53***	.32**	.44***	.32**	.05	.11	.08
	사랑	-.02	-.52***	.68***	.51***	.46***	.52***	.44***	-.41***	-.01	-.12
	친절성	-.01	-.20	.65***	.37**	.15	.65***	.35**	-.32**	.02	.11
용기	사회지능	.22	-.57***	.61***	.59***	.37**	.49***	.31**	-.15	.18	.05
	용감성	.17	-.61***	.35**	.72***	.57***	.36**	.29*	-.05	.06	-.10
	끈기	-.10	-.33**	.38**	.70***	.32**	.36**	.35**	-.13	.02	.07
	진실성	-.17	-.19	.30*	.29*	.30*	.40***	.29*	-.08	-.03	.04
절제	활력	.17	-.59***	.59***	.80***	.54***	.35**	.49***	-.25*	.11	.00
	용서	-.07	-.14	.34**	.20	.05	.71***	.38**	-.14	-.07	-.05
	겸손	-.32**	.21	.09	-.08	-.23*	.44***	.15	-.04	-.13	.15
	신중성	-.32**	.15	.15	.13	-.05	.39**	.38**	.00	.11	.32**
정의	자기조절	-.44***	-.05	.26*	.26*	.13	.55***	.32**	-.19	-.09	.08
	시민정신	-.24*	-.16	.49***	.30**	.16	.68***	.42***	-.31**	-.07	.07
	공정성	-.24*	.05	.12	.06	-.11	.63***	.24*	-.07	-.07	.14
초월	리더십	.06	-.53***	.56***	.64***	.44***	.45***	.28*	-.32**	-.01	-.02
	감상력	.20	-.42***	.51***	.45***	.34**	.42***	.42***	-.19	.06	-.16
	감사	-.11	-.48***	.60***	.50***	.55***	.58***	.53***	-.45***	-.14	-.24*
	낙관성	.12	-.68***	.56***	.71***	.67***	.44***	.39**	-.26*	.02	-.20
영성	유머감각	.17	-.39**	.53***	.46***	.29*	.43***	.26*	-.25*	.13	.03
	영성	-.19	.05	.16	.11	.09	.33**	.70***	-.27*	-.18	.01

주. NS=자극추구, HA=위험회피, RD=사회적 민감성, P=인내력, SD=자율성, C=연대감, ST=자기초월.

\*  $p < .05$ , \*\*  $p < .01$ , \*\*\*  $p < .001$

~.80)을 보였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드러낸 의 하위강점들과 사회적 민감성보다 더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비교해볼 때, 인내력은 용기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민감성과 그리

관련되지 않았던 지혜의 하위강점들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2에서는 성격차원과 24개 강점 사이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언급할 때, 자율성과 겸손 사이의 유일한 부적 상관( $r=-.23, p<.05$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3개 성격차원과 24개 강점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연대감은 창의성과 학구열을 제외한 22개 강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1\sim.71$ )을 보였으며, 특히 용서, 시민정신, 친절성, 공정성, 감사, 자기조절, 사랑과 .5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기초월은 겸손을 제외한 23개 강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24\sim.70$ )을 보였으며, 특히 영성, 감사, 호기심과 .5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율성은 13개의 강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29\sim.67$ )을 보였는데, 특히 낙관성, 용감성, 감사, 활력과 .5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자율성은 겸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공정성( $r=-.11, ns$ ) 및 신중성( $r=-.05, ns$ )과도 부적 방향의 상관을 보였으며, 영성, 학구열, 개방성, 창의성, 친절성, 용서, 자기조절, 시민정신 등과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 기질-성격차원과 성격장애 사이의 관계

기질-성격차원과 성격장애 사이의 상관계수는 앞의 표 1의 (5)에 제시하였다. 기질차원 중 자극추구는 전체 성격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59, p<.001$ )을 보였으며, 군집 A, 군집 B, 군집 C 성격장애 모두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순서대로  $r=.55, .67, .40, p<.01$  혹은  $p<.001$ . 위험회피

기질은 전체 성격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8, p<.01$ )을 보였으며, 군집 A 및 군집 C 성격장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31, .51, p<.01$  혹은  $p<.001$ .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전체 성격장애와 부적 상관( $r=-.22, ns$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오직 군집 A 성격장애와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52, p<.001$ . 인내력은 어떤 성격장애와도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성격차원 중에서 성격장애와 가장 밀접한 상관을 보인 것은 자율성이었으며, 자기초월은 성격장애와 큰 관련이 없었다. 자율성은 전체( $r=-.44, p<.001$ ) 및 군집 A( $r=-.39, p<.01$ ), 군집 B( $r=-.27, p<.05$ ), 군집 C( $r=-.53, p<.001$ ) 성격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드러내었다. 연대감은 전체 및 여러 성격장애들과 부적 방향의 상관을 보였으나, 군집 A 성격장애와의 상관계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r=-.32, p<.01$ .

이를 성격장애별로 살펴보면, 군집 A 성격장애는 기질차원 중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와 정적으로 관련되고 사회적 민감성과 부적 방향으로 관련되었으며, 성격차원 중 자율성 및 연대감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 군집 B 성격장애는 자극추구 기질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자율성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 군집 C 성격장애는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자율성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 요컨대, 성격장애 측정치들은 기질차원 중에서는 자극추구와 성격차원 중에서는 자율성과 가장 관련이 깊었다.

### 심리적 적응 및 성격장애에 대한 기질-성격차원의 상대적 기여도

다음으로, 심리적 적응에 대한 기질-성격 차원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긍정 정서성, 부정 정서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지정하고 기질-성격 모형의 7개 차원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질-성격 모형의 7개 차원들은 주관적 안녕감 변량의 44%를 설명하였다,  $F(7, 95)=12.42$ ,  $p<.001$ . 아울러, 사회적 민감성 기질( $\beta=.30$ ,  $p<.05$ )과 자율성 성격( $\beta=.48$ ,  $p<.01$ )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을 때,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 역시 사회적 민감성( $\beta=.23$ ,  $p<.05$ )과 자율성( $\beta=.63$ ,  $p<.001$ )이었다. 긍정 정서성에는 사회적 민감성( $\beta=.27$ ,  $p<.05$ )과 인내력( $\beta=.37$ ,  $p<.05$ )이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으며, 부정 정서성에는 자율성( $\beta=-.53$ ,  $p<.001$ )과 연대감( $\beta=-2.02$ ,  $p<.05$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격장애에 대한 기질-성격 차원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군집 A, 군집 B, 군집 C 및 전체 성격장애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지정하고 기질-성격 모형의 7개 차원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질-성격 모형의 7개 차원들은 군집 A 성격장애 변량의 62%를 설명하였다,  $F(7, 95)=26.16$ ,  $p<.001$ . 아울러, 자극추구( $\beta=.48$ ,  $p<.001$ )와 사회적 민감성( $\beta=-.54$ ,  $p<.001$ )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군집 A 성격장애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을 때, 군집 B

성격장애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은 자극추구( $\beta=.58$ ,  $p<.001$ )였으며, 군집 C 성격장애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은 자극추구( $\beta=.27$ ,  $p<.05$ ), 위협회피( $\beta=.43$ ,  $p<.01$ ), 인내력( $\beta=.28$ ,  $p<.05$ ) 및 자율성( $\beta=-.37$ ,  $p<.01$ )이었다. 전체 성격장애에 대한 기여도는 자극추구( $\beta=.48$ ,  $p<.001$ ), 위협회피( $\beta=.33$ ,  $p<.05$ ) 및 인내력( $\beta=.26$ ,  $p<.05$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격차원의 성숙도에 따른 심리적 적응, 성격장애 및 성격적 강점 측정치의 차이 검증

성격차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심리적 적응의 지표, 성격장애 측정치, 그리고 성격적 강점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3가지 성격차원 점수가 상위 15% 및 하위 15%에 해당되는 집단을 성격차원별로 추출하여, 각 차원에서 성숙한 집단(높은 점수)과 미성숙한 집단(낮은 점수)으로 구분한 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자율성과 연대감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두 집단 간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이것은 성격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변별력이 높은 지표는 자율성과 연대감 점수를 합산한 것이었다는 선행연구 (Cloninger & Svrakic, 2000)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성 성격차원에서 성숙한 집단은 미성숙한 집단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 $t=-7.64$ ,  $p<.001$ )과 주관적 행복감( $t=-6.89$ ,  $p<.001$ )이 더 높았으며, 긍정 정서( $t=-3.17$ ,  $p<.01$ )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부정 정서( $t=5.37$ ,  $p<.001$ )를 더 적게 경험하였다.

표 3. 성격차원이 성숙한 집단과 미성숙한 집단의 심리적 적응, 성격장애 및 성격적 강점 측정치의 차이 검증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자율성+연대감		
		미정숙	정숙	z	미정숙	정숙	z	미정숙	정숙	z	미정숙	정숙	z
주관적 안녕감	평균	37.67	57.80	-7.64***	40.10	49.82	-1.44	38.30	55.00	-2.88**	37.78	55.00	-3.93**
	(표준편차)	( 8.93)	( 8.37)		(17.70)	(13.05)		(16.03)	( 7.00)		(10.34)	(16.54)	
주관적 행복감	평균	26.44	42.60	-6.89***	33.30	38.11	-1.36	31.20	40.67	-2.89**	26.89	42.70	-7.12**
	(표준편차)	( 6.58)	( 3.77)		(10.19)	( 5.95)		( 8.64)	( 4.97)		( 6.55)	( 2.50)	
긍정 정서성	평균	11.00	21.00	-3.17**	13.80	19.91	-1.85	9.70	21.22	-4.31***	8.00	20.70	-4.44***
	(표준편차)	( 6.22)	( 7.41)		( 9.50)	( 5.28)		( 5.96)	( 5.65)		( 4.58)	( 7.38)	
부정 정서성	평균	17.89	4.20	3.37***	12.70	10.09	.76	11.80	11.22	.20	17.33	5.60	4.61***
	(표준편차)	( 6.47)	( 4.54)		( 9.10)	( 6.66)		( 7.66)	( 4.17)		( 5.55)	( 5.54)	
군집 A 성격장애	평균	35.67	18.90	2.23*	34.20	17.36	2.11*	24.90	19.77	.60	38.33	15.50	3.19**
	(표준편차)	(20.63)	(11.34)		(24.67)	( 9.33)		(18.54)	(12.77)		(22.14)	( 4.97)	
군집 B 성격장애	평균	48.78	32.70	1.55	45.20	28.91	1.56	26.60	37.11	-1.31	45.11	26.40	2.00
	(표준편차)	(25.69)	(20.19)		(30.89)	(15.20)		(16.13)	(18.73)		(28.08)	( 9.21)	
군집 C 성격장애	평균	48.88	22.90	3.50**	31.70	30.82	.12	28.20	36.67	-1.22	46.44	23.90	2.67*
	(표준편차)	(21.88)	( 8.22)		(22.59)	(10.50)		(15.85)	(14.11)		(25.43)	( 7.93)	
전체 성격장애	평균	128.00	92.20	2.67*	151.30	96.64	1.30	99.50	114.89	-6.6	154.33	82.70	2.95**
	(표준편차)	(67.08)	(37.95)		(82.08)	(34.61)		(54.89)	(44.85)		(74.76)	(17.95)	
지 려	평균	83.95	94.56	-1.86	77.72	92.89	-2.11*	74.21	100.56	-4.71***	81.89	94.94	-1.83
	(표준편차)	(18.70)	(16.25)		(24.12)	(19.49)		(15.12)	(18.81)		(23.25)	(18.60)	
자 예	평균	53.60	69.22	-3.28**	46.72	69.05	-5.25***	52.47	67.17	-3.01**	51.78	71.24	-3.83**
	(표준편차)	(17.29)	(11.04)		(14.07)	(11.74)		(17.13)	(11.98)		(18.56)	(10.01)	
용 기	평균	51.60	76.11	-4.77***	51.22	71.89	-3.29**	54.53	74.78	-3.63**	50.39	76.94	-4.44***
	(표준편차)	(18.18)	(12.67)		(20.01)	(18.18)		(20.75)	(11.77)		(20.40)	(14.25)	
절 제	평균	63.70	61.61	.30	49.22	80.55	-6.95***	53.79	71.67	-3.13**	61.28	72.64	-1.94
	(표준편차)	(13.95)	(19.15)		(16.37)	(10.55)		(18.34)	(16.26)		(18.79)	(15.62)	
정 의	평균	43.85	50.67	-1.76	33.89	57.11	-7.56***	40.47	52.56	-2.95**	41.00	55.24	-3.69**
	(표준편차)	(13.20)	(10.24)		(10.09)	( 8.56)		(14.47)	( 9.88)		(14.09)	( 7.54)	
초 월	평균	74.90	102.50	-3.70**	71.06	102.68	-4.09***	71.63	109.22	-5.38***	72.44	109.00	-4.38***
	(표준편차)	(28.11)	(15.36)		(26.77)	(19.99)		(25.10)	(16.20)		(29.88)	(17.52)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성격장애 중 전체 성격장애( $t=2.67, p<.05$ ), 군집 A 성격장애( $t=2.23, p<.05$ ), 군집 C 성격장애( $t=3.50, p<.01$ ) 점수와 성격적 강점 중 자애( $t=-3.28, p<.01$ ), 용기( $t=-4.77, p<.001$ ), 초월( $t=-3.70, p<.01$ )에서도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대감 성격차원의 경우, 성숙도에 따른 집단간의 심리적 적응 측정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대감의 성숙도는 성격장애 중 군집 A 성격장애( $t=2.11, p<.05$ ) 점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은 연대감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군집 A 성격장애에 취약함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성격적 강점의 모든 측정치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연대감이 성숙한 사람들이 성격적 강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자기초월 성격차원은 앞의 두 성격차원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양상을 드러내었다. 자기초월 차원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심리적 적응의 측면에서 양호하였으나, 일부 성격장애에서는 오히려 취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초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주관적 안녕감( $t=-2.88, p<.01$ )과 주관적 행복감( $t=-2.89, p<.01$ )이 더 높았으며, 긍정 정서( $t=-4.31, p<.001$ )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부정 정서( $t=4.61, p<.001$ )를 더 적게 경험하였다. 여기까지는 자율성 및 연대감과 유사한 양상이었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초월 점수가 높은 집단은 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군집 B( $t=-1.31, ns$ ), 군집 C( $t=-1.22, ns$ ), 그리고 전체 성격장애( $t=-.66, ns$ ) 점수가 더 높았다. 성격적 강점의 모든 측정치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은 자기초월이 성

숙한 사람들이 성격적 강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성과 연대감을 합산하여 성숙한 집단과 미성숙한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지표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율성과 연대감의 합산점수는 자율성 단독점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격적 강점의 경우에는 자애( $t=-3.83, p<.01$ ), 용기( $t=-4.44, p<.001$ ), 정의( $t=-3.69, p<.01$ ) 및 초월( $t=-4.38, p<.001$ )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 주요변인들 사이의 관계

표 4에는 주요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우선, 성격적 강점검사의 6개 상위척목 사이의 상관계수를 표 4의 (1)에서 살펴보면, 모든 상위척목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 상관( $r=.32\sim.80, p<.01$  혹은  $p<.001$ )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다른 상위척목들과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절제 상위척목을 제외하면, 상관계수의 범위는 .51~.80에 달했다.

성격적 강점검사의 6개 상위척목과 심리적 적응 지표 사이의 상관계수는 표 4의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점검사의 6개 상위척목은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및 긍정 정서성과 전반적인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긍정 정서성은 6개 상위척목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상관값은 용기( $r=.63$ ), 초월( $r=.56$ ), 자애( $r=.54$ ), 지혜( $r=.42$ ), 정의( $r=.42$ ), 절제( $r=.27$ ) 순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및 주관적 행복감과 6개 상위척목 사이의 상관패턴은 서로 유사하였는데, 이들과 가장 상관이 높은 강점의 상위척목은 초월(각각

표 4. 주요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

	강 점						적 음				성격장애			
	지 혜	자 애	용 기	절 제	정 의	초 월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긍정 정서성	부정 정서성	군집 A	군집 B	군집 C	전 체
(1)	지 혜	-												
	자 애	.58***	-											
	용 기	.65***	.67***	-										
	절 제	.32**	.39**	.46***	-									
	정 의	.51***	.66***	.68***	.67***	-								
	초 월	.59***	.80***	.64***	.34**	.58***	-							
(2)	주관적 안녕감	.23*	.46***	.38**	.08	.25*	.60***	-						
	주관적 행복감	.25*	.57***	.52***	.13	.36**	.69***	.69***	-					
	긍정 정서성	.42***	.54***	.63***	.27*	.42***	.56***	.55***	.56***	-				
	부정 정서성	-.03	-.17	-.24*	.02	-.16	-.29***	-.40***	-.51***	-.20	-			
(3)	군집 A	.18	-.32**	-.16	-.12	-.31**	-.39**	-.41***	-.44***	-.18	.34**	-		
	군집 B	.31**	.08	.05	-.06	-.06	-.05	-.16	-.08	.07	.29*	.74***	-	
	군집 C	.21	.01	.01	.14	.07	-.14	-.35**	-.25*	-.05	.40**	.61***	.76***	-
	전 체	.28*	-.04	-.02	.01	-.09	-.19	-.33**	-.26*	-.05	.36**	.85***	.93***	.69***

\*p < .05, \*\*p < .01, \*\*\*p < .001

$r=.60, .69$ )이었고, 다음으로 자애(각각  $r=.46, .57$ ), 용기(각각  $r=.38, .52$ ), 정의(각각  $r=.25, .36$ ), 지혜(각각  $r=.23, .25$ ) 순이었다. 예외적으로, 절제 상위덕목은 주관적 안녕감 및 주관적 행복감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각각  $r=.08, .13, ns$ ). 반면, 부정 정서성은 강점검사의 6개 상위덕목과 대체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 초월( $r=-.29, p<.05$ )과 용기( $r=-.24, p<.05$ )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의 (3)의 가운데에는 성격 신념 질문지로 평가한 성격장애 측정치와 심리적 적응 지표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성격 신념 질문지의 총점을 반영하는 전체 성격장애 점수는 주관적 안녕감( $r=-.33, p<.01$ ) 및 주관적 행복감( $r=-.26, p<.05$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 정서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8, p<.01$ )을 나타내었다. 군집 A 성격장애 점수와 군집 C 성격장애 점수 역시 이와 동일한 상관패턴을 보였다. 군집 B 성격장애 점수도 이와 유사한 방향성을 드러냈으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부정 정서성과의 정적 상관( $r=.29, p<.05$ ) 뿐이었다. 이것은 심리적 적응과 성격장애 지표 사이의 예측가능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긍정 정서성과 성격장애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부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추가적으로, 강점의 존재 혹은 부재와 성격장애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이들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의 (3)의 좌측에서 알 수 있듯이, 군집 A 성격장애는 강점의 상위덕목 중 자애, 정의, 초월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순서대로

$r=-.32, -.31, -.39$ , 모두  $p<.01$ . 군집 B 성격장애는 지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1, p<.01$ )을 보였으며, 나머지 상위덕목과는 의미 있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군집 C 성격장애는 6개 상위덕목 모두와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각 성격장애 점수와 24개 강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표 4의 최우측 참조). 군집 A 성격장애는 24개 강점과 다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앞서 언급한 자애의 하위강점인 사랑( $r=-.41$ ), 친절성( $r=-.32$ ), 정의의 하위강점인 시민정신( $r=-.31$ ), 리더십( $r=-.32$ ), 초월의 하위강점인 감사( $r=-.45$ ), 낙관성( $r=-.26$ ), 유머 감각( $r=-.25$ ), 영성( $r=-.27$ ), 그리고 활력( $r=-.25$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례적으로 창의성( $r=.24$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달리, 군집 B 성격장애는 지혜의 하위강점인 창의성( $r=.34$ ), 호기심( $r=.32$ ), 개방성( $r=.24$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떤 상위덕목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던 군집 C 성격장애는 하위강점 중 감사( $r=-.24$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개방성( $r=.37$ ) 및 신중성( $r=.32$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1987, 2004)가 제안한 기질-성격 모형이 심리적 적응, 성격적 강점, 그리고 전통적 성격장애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다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기질-성격 모형의 진단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치료적 함의에 주목하였으며,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도 이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Cloninger(2004)에 따르면, 기질차원은 극단적일 때 그리고 성격차원은 미성숙할 때 심리장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그러므로 기질차원을 평가할 때는 극단성과 동시에 강함과 약함의 방향성도 고려해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연구 결과, 자극추구 기질은 군집 A, 군집 B, 군집 C 성격장애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위협회피 기질은 군집 A 및 군집 C 성격장애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군집 A 성격장애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동시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성격장애에 대한 기질차원의 상대적 기여도를 검증했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이것은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Svrakic 등(2002)이 실시한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즉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은 약할수록,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강할수록 적응에 유리하다는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심리적 적응의 지표와 기질차원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이 결과 역시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추론되는 내용과 부합하였다. 즉, 위협회피 기질은 심리적 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은 심리적 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단, 본 연구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심리적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결과는 Lykken과 Tellegen(1996)이 제안한 행복기준점(happiness set point)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대입하

면, 위협회피 기질은 행복기준점을 부정 방향으로 기울이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은 행복기준점을 긍정 방향으로 기울인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로 자극추구 기질의 상관패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극추구는 다른 기질차원들에 비해 성격장애와 강한 상관을 보였으나, 심리적 적응의 지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심리적 적응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검증한 중다회귀분석에서도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극추구 기질이 상당히 복잡한 속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비록 선행연구들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심리적 적응을 방해하고 성격의 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으나(Cloninger, 2004; Svrakic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자극추구는 성격적 강점의 상위덕목 중 지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지혜의 하위덕목 중 창의성 및 호기심과 상당히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새롭고 신기하며 낯선 자극을 접하면 강하게 흥분하여 환경을 활발히 탐색하는 성향인 자극추구 기질이 강한 것이 전반적으로는 심리적 적응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탄력성(즉, 창의성 및 호기심의 발현을 통한 잠재적 보상 기회의 획득)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각각의 기질차원은 취약성/단점과 더불어 탄력성/장점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본 연구자들의 주요 가정을 지지하는 하나의 증거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성격차원과 심리적 적응 및 성격장애의 관련성, 그리고 성격차원의 임상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자

들은 Cloninger 등(1994)이 제안한 성격차원의 의미와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성격차원은 개인이 자신을 자기-사회-우주의 일부로 조화롭게 지각하는 연속적 성숙과정을 반영한다. 성격차원들이 모두 미성숙할 때는 우울한(melancholic)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 성숙할 때는 창조적(creative)인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된다. Cloninger(2004)는 그동안 인본주의심리학, 초월심리학, 정신역동치료 등에서 논의된 바를 통합하여 위와 같은 성격차원들을 도출했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원들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긍정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타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mmons(1999, 2003)는 행복한 삶과 관련이 깊은 대표적인 인생의 의미로 일, 친밀감, 영성, 초월을 제시하였으며, Ebersole(1998)과 Wong(1998)의 연구에서도 일/성취, 친밀감/관계, 영성/종교, 초월/다산성이라는 주제로 인생의 의미가 수렴되었다(권석만, 2008). 아울러,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 역시 Cloninger가 제안한 성격차원의 타당성과 임상적 함의를 지지하였다. 성격의 세 차원은 모두 심리적 적응의 지표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성격적 강점의 상위덕목들과도 전반적인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자율성은 심리적 적응의 지표들과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임과 동시에 성격장애 측정치들과는 뚜렷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중다회귀분석에서도 상당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이 일부 검증되었다.

더 나아가서, 성격의 성숙을 통해서 기질을 조절한다는 가정이 뜻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질에 의해 유발되는 자동적 반응은 가용한 주의자원을 특정한 자극에 협조하게 제한시킨다. 즉, 우리의 주의를 기질적 반응에 의해 지배되고 구속된다(민병배 등,

2007b). 하지만, 성격의 성숙은 의도적이고 유연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이끈다. 비록 직접적이고 충분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격차원에서 성숙한 집단과 미성숙한 집단이 심리적 적응, 성격장애, 성격적 강점의 측정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물론, 향후 정교한 연구를 통해서 성격의 조절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Lyubomirsky, Sheldon과 Schkade(2005)는 행복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행복기준점뿐만 아니라 '의지적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는데, 이것은 기질에 의한 자동적 반응이 성격에 의한 의도적 반응을 통해 조절된다는 기질-성격 모형의 가정과 상통한다.

다음으로, 기질차원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탄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안한 성격적 강점의 6개 상위덕목과 24개 하위덕목을 검토함으로써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를 살펴기에 앞서, 본 연구자들은 Beck 등(2004)이 소개한 과잉발달된 방략 및 과소발달된 방략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였는데, 특정한 방략의 과잉 혹은 과소발달에 기여하는 변인 중 하나가 기질이다. 기질은 어떤 방략의 존재와 관련됨과 동시에 어떤 방략의 부재와도 관련된다. 여기서, 방략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며, 방략의 극단적이고 경직된 사용 혹은 불용이 문제이지 방략 그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록 각각의 기질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질은 강점을 나타내기도 한다(Cloninger, 2004).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경험적 결과를 살펴보

면, 자극추구 기질은 24개 강점 중 지혜 상위덕목에 포함되는 창의성, 호기심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절제 및 정의 상위덕목에 포함되는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시민정신, 공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위덕목 중 초월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비록 자극추구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조절을 못하며, 겸손하거나 공정하지 않고, 시민정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풍부하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임을 시사하며, 다소의 낙관성, 유머감각, 감상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자극추구 기질이 약한 사람들은 위와 반대되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위험회피 기질은 24개 강점 상당수와 부적 상관을 보여, 강한 위험회피 기질은 전반적 취약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럼에도 위험회피는 절제의 하위덕목인 겸손 및 신중성과 미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개념적으로 납득될만한 내용이었다. 위험회피 기질이 약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양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위험회피와 정반대로 24개 강점 대부분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강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감사, 낙관성, 리더십 등에서 강하여 전반적으로 탄력적임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민감성과 강점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상관이 약한 것이 학구열, 겸손, 공정성, 신중성, 창의성 등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다소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성격장애와 24개 강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흥미롭다. 군집 A 성격장애는 사랑, 친절성, 감사, 리더십, 낙관성, 유머감각,

시민정신, 활력 등과 납득이 되는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이례적으로 창의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Kuncze와 Anderson(1984)이 MMPI의 척도 8을 ‘상상력’이라고 명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전위적이고 창조적인 성향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발현될 때는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이 이해될 만하다. 군집 B 성격장애는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군집 C 성격장애는 감사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개방성 및 신중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방성(open-mindedness)은 자신이 지지하는 신념, 계획, 목표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그것이 적절한 것이라면 기꺼이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자세를 뜻하며, 신중성(prudence)은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권석만, 2008). 군집 C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지나친 불안, 두려움, 걱정, 체계화, 조심성 등을 감안하면, 개방성과 신중성이 과연 긍정적 강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방략의 존재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평가해야 한다(Beck et al., 2004)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납득이 가능한 결과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기질이 심리적 적응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점과 관하여 한 가지 더 논의할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격적 강점들은 긍정 정서성과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정 정서성과는 일부에서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장애와 강점

사이의 관계에서도 관찰되었다. 이것은 강점의 부재가 곧 부정적 정서로 대변되는 심리적 부적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술한 바와 같은 논의들이 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에는 상당한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특정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었기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측정치의 표준편차가 상당히 크고 일부 측정치의 분포가 정적 혹은 부적으로 편포된 점에서 시사되듯이(예: 성격 신념 질문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임상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반복검증 등의 방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한 연구였고 상당수의 통계분석을 상관분석에 의지하였기에, 기술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인과적 설명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는 심리측정적 속성 및 의미적 명료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정도구(예: 행복척도, 성격적 강점검사)와 구성개념(예: 주관적 행복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측정도구와 구성개념을 더욱 정제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기질-성격 모형 자체가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자칫 피상적이고 장황한 결과를 나열한 인상을 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겠다. 향후 보다 정교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제한점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당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의 의의를 찾는다면, 그간 심리치료자들로 부터 경시되어왔던 변화 불가능한 요인에 주목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겠다. 변화가 불가능한 심리적 요인은 내담자의 문제가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McWilliams, 1999). 내담자들은 자신의 선천적 기질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기질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Young et al., 2003). 많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기질적 성향, 그러한 기질적 성향이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반응, 그러한 자동적 반응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는 자신을 연쇄적으로 혐오하며,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며 부적응적이고 무용무익한 직접적 통제노력(Shapiro & Astin, 1998)을 시도하면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기질-성격 모형의 임상적 함의는 변화가 불가능한 요인과 변화가 가능한 요인을 구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불가능한 요인을 대하는 적응적인 방법과 변화가 가능한 요인을 대하는 적응적인 방법을 변별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질의 이해와 수용, 성격의 성숙과 발달, 강점의 발견과 활용이라는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09). *서울대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성격적 강점검사의 개발*. 미발표 연구보고서.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a). 기질 및 성격 검사-성인용(TCI-RS). 서울: (주)마음사랑.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b).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 서울: (주)마음사랑.
- 유성진, 권석만 (2008). 심리치료에서 도식과 양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91-117.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조수덕, 황순택, 박미정 (2008). 성격 신념 질 문지(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25-945.
- 조수아 (2008). 용서 신념이 용서와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표승연 (2002). 정서 경험에 따른 주관 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403-427.
- Beck, A. T., & Beck, J. S. (1991). *The 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PA: Beck Institute f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Y: The Guilford Press.
- Beck, A. T., Freeman, A., & Davis, D. D. (2004).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Y: The Guilford Press.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7.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loninger, C. R., & Svrakic, D. M. (2000). Personality disorders. In B. J. Sadock & V. A. Sadock (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pp.1723-1764). NY: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Ebersole, P. (1998). Types and depth of written life meanings.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pp. 179-191). NJ: Erlbaum.
- Eder, R. A., & Mangelsdorf, S. C. (1997). The emotional basis of early personality development.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209-240). NY: Academic Press.
- Eifert, G. H., & Forsyth, J. P. (2005).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for anxiety disorders*.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Emmons, R. A. (1999). *The psychology of ultimate concerns: Motivation and spirituality in personality*. NY: The Guilford Press.
- Emmons, R. A. (2003).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virtue: Wellsprings of a positive life. In C. L. M.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105-1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yes, S. C. (2005). *Get out of your mind and into your life*.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NY: The Guilford Press.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1997). Temperament and the reactions to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8, 139-143.
- Keyes, C. L. M., & Lopez, S. J. (2002). Toward a science of mental health: Positive directions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 In C. R. Syn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45-59).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unce, J., & Anderson, W. (1984). Perspectives on uses of the MMPI in nonpsychiatric settings. In P. McReynolds & G. J. Chelune (Eds.),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SF: Jossey-Bass.
- Lykken, D., & Tellegen, A. (1996).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7, 186-189.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 111-131.
- McWilliams, N. (1999). *Psychoanalytic case formulation*. NY: The Guilford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rior, M. (1992). Childhood tempera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249-279.
- Shapiro, D. H., & Astin, J. A. (1998). *Control therapy: An integrated approach to psychotherapy, health, and healing*. NY: John Wiley & Sons.
- Svrakic, D. M., Draganic, S., Hill, K., Bayon, C., Przybeck, T. R., & Cloninger, C. R. (2002). Temperament, character, and personality disorders: Etiologic, diagnostic, treatment issu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6.
- Svrakic, D. M., Whitehead, C.,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3). Differential diagnosis of personality disorders by the seven-factor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91-999.
- Tellegen, A., Ben-Porath, Y. S., McNulty, J. L., Arbisi, P. A., Graham, J. R., & Kaemmer, B. (2003). *The MMPI-2 restructured clinical (RC) scales: Development,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tson, D. (2000). *Mood and temperament*. NY: The Guilford Press.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0).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NJ: Prentice Hall.
- Wong, P. T. P. (1998). Spirituality, meaning, and successful aging.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pp. 359-394). NJ: Erlbaum.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Y: The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 : 2009. 2.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9. 3. 17.  
게재결정일 : 2009. 3. 31.

##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emperament-Character Model in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eong-Jin Yoo**

**Seok-Man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Cloninger(1987, 2004)'s temperament-character model of personality through grafting current psychotherapeutic approaches (focusing on change and accept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researches (in which examine happiness and adaptation) onto the suggested model.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temperament-character dimensions of personality with psychological adaptation, character strengths, and personality disorder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We found that psychological maladaptation and personality disorders were generally related to high novelty seeking, high harm avoidance, low reward dependence, low persistence of temperament dimensions, and low self-directedness, low cooperativeness, low self-transcendence of character dimensions. Furthermore, temperament dimensions were separately related to specific character strengths and specific clusters of personality disorders. These results showed that temperament dimensions operate both vulnerable and resilient manner upon adapt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s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temperament regulation through character maturation in theoretical and empirical manner.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temperament, character, personality, character strength, personality disorder*